

분류체계에 관한 인용분석*

— 국제서지를 바탕으로 —

정 연 경**

목 차

1. 서 론	2.5 선행 연구
1.1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분석 및 결과
1.2 연구의 목적	3.1 형태별 분석
2. 연구방법	3.2 주제별 분석
2.1 표본	3.3 언어별 분석
2.2 데이터 수집	3.4 발행국별 분석
2.2.1 제 1단계 문헌	3.5 수명
2.2.2 제 2단계 문헌	3.6 공동 연구 정도
2.3 데이터 분석	3.7 참고문헌의 유무와 그 수
2.4 연구의 가정과 제한점	4. 결 론

1. 서 론

사서는 인류 문화의 기록을 수집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수집된 장서를 체계적인 방식에 의해 배열하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분류라고 일컫는다.¹⁾ 그래서 Maltby²⁾는 도서관의 바탕이 문헌으로 이루어지고

* 이 논문은 1992년도 Indian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Grant-in-Aid와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diana University의 Research & Development Fund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강사

1) Bohdan S. Wynar.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Littleton, CO: Libraries Unlimited, 1980), p.390.

2) A. Maltby.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London: Andre Deutch, 1975), p.23.

사서직의 근본은 분류라고까지 하였다. 분류의 중요성은 지난 몇 세기동안 온라인 목록의 출현과 함께 더 많은 관심을 끌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로 Via³⁾는 미국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24개 주제분야를 위한 장서개발에 있어서 분류 및 목록이 1984년에는 제일 중요한 분야였고 1989년에는 두번째로 중요하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만큼 분류는 문헌정보학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1.1 연구의 필요성

주제 문헌에 관한 연구는 문헌의 범주를 결정하고 문제점을 지적해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는 등 보다 나은 문헌 통정을 가져다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문헌의 기본 성격, 특히 이 분야의 국제적인 성격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아서 Dahlberg⁴⁾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분류체계에 관한 통계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분야에 있어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문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에 관한 문헌 연구는 국제적인 문헌이 적절히 포괄되지 못한 채 이루어져왔다. Frohmann⁵⁾과 Afolabi⁶⁾는 영어로 된 잡지의 참고문헌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 분야의 문헌 연구가 국제적인 측면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주제 문헌의 성격이 매우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분류체계 연구의 국제적인 성격은 그 주제 문헌과 그 문헌에 실린 참고문헌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정보 소통을 연구함으로써 문헌의 국제적인 흐름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가 해외 자료의 구독 결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지금까지 무시되었지만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
- 3) Barbara J. Via, Collection Development in Suppor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 Study of Response to Changing Curricular.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1992), pp.91-109.
- 4) I. Dahlberg, Editorial: 10 Years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Could You Do Without It?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1(1984), pp.1-2.
- 5) Bernd Frohmann, A Bibliometric Analysis of the Literature of Cataloguing and Classification, *Library Research*, 4(1982), pp.355-373.
- 6) Michael Afolabi, *The Literature of Bibliographical Classification: A Citation Study to Determine the Core Literature*. (Ph. 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1983).

외국어로 된 분류체계 문헌으로의 관심과 인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모든 분류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 세계로부터 나오는 많은 견해와 경험을 바탕으로한 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다. 더우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문헌의 양과 도서관에서의 제한된 예산이라는 현실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헌의 특성과 정보 이용이 주제 문헌 분석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간행된 분류체계에 관한 국제 문헌의 성격을 연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문헌의 구조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인 문헌의 형태, 주제, 언어, 발행국, 수명, 저자의 소속 기관, 저자의 공동연구 정도, 참고문헌의 수 등을 측정한다. 두번째 목적은 문헌의 국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주된 관심은 각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얼마나 다양한 언어가 이 분야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특히 각 문헌과 그 문헌에 실린 참고문헌이 같은 언어나 같은 발행국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서 언어와 발행국과의 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Saracevic & Perk⁷⁾는 주제 분야의 연구 활동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제 문헌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문헌 분석이 주제로 향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해 주는 것으로써 다른 모든 분석에도 필수불가결하며 문헌의 통정, 바꾸어 말하면 문헌정보학의 기본 관심사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분류체계에 관한 문헌의 성격에 보다 나은 이해, 즉 이 분야의 간행 활동, 연구 경향과 속성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준다. 더 나아가 많은 분류체계 문헌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과 경향까지도 알게 해 준다. 특히 문헌에 쓰여진 언어의 추세는 국제 학술 정보 교환의 구조에 보다 나은 이해를 하도록 도와준다. 결과적으로 도서관 실무진과 연구자들이 이 분야의 문제점과 쟁점을 바탕으로 분류체계 관련 자료의 선정, 관리 및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도서관 정책 수립에

7) Tefko Saracevic & Lawrence J. Perk, Ascertaining Activities in a Subject Area Through Bibliometric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4(1973), p.120.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잠재적인 중요성이 있는 외국어로 된 분류체계 문헌으로의 새로운 관심을 조장시켜 이 분야의 국제적 정서, 교환과 가치 있는 상호 협동을 가져온다. 결국 그러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연구 분야를 개방시킬 것이며 분류체계 연구의 확산에 관심을 갖는 사서와 연구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주제 문헌을 인식하는 유용한 방법은 그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쓰여진 문헌의 이용도를 제공해 주는 출판물의 참고문헌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주제 문헌에 나타난 참고문헌의 수를 양적으로 세고 항목화하고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문헌의 구조적 성격을 제공하고 간행물의 이용을 분석해 준다. 한 항목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인용한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와 인용하려는 문헌에서 언급되어진 사실과 충분히 관계가 있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거나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인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참고문헌이 확실한 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용된 자료의 질을 알려주는 것이 못된다하더라도 빈번히 인용된 문헌은 다른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이며 어떤 문헌들이 주로 인용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분야의 속성과 연구 활동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이용에 대한 예측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분류체계 문헌과 그 안의 참고문헌을 분석함으로써 문헌의 이용과 성격을 서술하고자 한다.

2.1 표본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발행된 모든 문헌을 완전히 수록하는 서지, 색인지나 초록지가 없기 때문에 주제 분야에 적합한 서지, 색인지나 초록지를 우선 정하고 거기서 나온 문헌과 그 문헌에 실린 참고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쓰여진 데이터 집단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IC)*이라는 국제 분류학 잡지 안

에 수록된 주해 서지, Classification Literature (CL) Section의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분류체계에 관한 국제문헌과 그 문헌에 실린 참고 문헌이다. IC는 1974년부터 간행되었고 1993년에는 간행물명이 *Knowledge Organization (KO)*으로 바뀐 계간지이다. 분류에 관한 지식이 너무 산재해 있어서 이것을 다 모아 하나의 과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간행물로, 최근 문헌에 관한 주해 서지까지 실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래서 Katz & Katz⁸⁾는 IC가 지식을 조직하는데 이론적 접근을 제공해 주며 분류 방법과 분류 과정의 향상을 위한 발표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분류 문헌의 서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과 분류 이론에 관심을 둔 실무 목록자들을 위한 질적 수준이 높은 잡지라고 하였다. 주해 서지인 CL은 편집인인 Dahlberg가 International Society for Knowledge Organization (ISKO) 회원들로부터 받은 정보와 신착 도서들, 그리고 7개의 문헌정보학 관련 색인 및 초록지(*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Pascal: Science Abstracts L'Information Documentation, Informatics Abstracts, Aslib Current Awareness Bulletin,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 Annotierte Titelliste, Library Literature*)로부터 분류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서 매 호마다 IC에 발행해 왔다. 그래서 일반 색인 초록지보다도 많은 형태와 언어로 이루어진 분류학 관련 자료를 깊이 있게 다룬 현행 국제 서지로 이 연구에 쓰이게 되었다.

2.2 데이터 수집

2.2.1 제 1단계 문헌 (Level-One Literature)

제 1단계 문헌이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CL에 실린 분류체계 관련 문헌으로 참고문헌을 갖고 있는 자료이다. 여기서 분류체계란 서가에 자료를 배열하고 간행물을 분류하는데 쓰인 체계로 제한하였다. 그래서 CL의 10개 분야 중 분류체계에 관한 항목인 Universal Systems를 선택하였고 그 아래 소항목으로 분류체

8) William A. Katz & Linda Sternberg Katz. *Magazines for Libraries*. 7th ed. (New Province, NJ: Bowker, 1992).

계 일반론,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Library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분류체계에 관한 자료로 나누어져, 이에 관한 모든 문헌과 상관 참조 자료까지 포함하였다. 표 1은 전체 분류체계 문헌의 구성을 보여주는데 각 문헌의 서지 사항에 쓰여진 참고문헌의 수를 바탕으로 참고문헌의 유무를 알아낼 수 있었다.

〈 표 1 〉 전체 분류체계 문헌의 구성

국제 분류체계 문헌	수 량	%
참고문헌이 없는 문헌	639	56.3
참고문헌이 있는 문헌 (제 1단계 문헌)	495	43.7
전체 문헌	1,134	100.0

1992년 9월부터 11월까지 495개의 참고문헌이 있는 문헌을 미국의 6개 주요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Columbia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Los Angeles, Indiana University)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기간에 구하지 못한 자료는 Indiana University의 상호대차 봉사를 이용하여 1993년 2월 28일까지 수집하였다. 495개의 문헌 중 420개가 수집되었고 최종 수집된 제 1단계 문헌에서 저자의 수, 자료의 형태, 주제, 언어, 발행국, 저자의 소속기관, 발행년도, 참고문헌의 수가 제 1단계 데이터베이스 운영 체계 화일에 입력되었다.

2.2.2 제 2단계 문헌 (Level-Two Literature)

제 2단계 문헌은 수집된 420개의 제 1단계 문헌에서 참고문헌으로 쓰여진 5,302개의 자료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참고문헌이란 참고서지로 각 문헌의 끝에 수록된 것을 원칙적으로 포함하였고 이러한 서지가 없는 경우에는 각주를 참고 문헌으로 인정하였다. 제 2단계 문헌에서는 저자의 수, 자료의 형태, 주제, 인용한

문헌과 인용된 문헌에 사용된 각각의 언어, 발행국, 발행년도를 제 2단계 데이터 베이스 운영 체제 화일에 입력하였다.

2.3 데이터 분석

데이터가 입력된 후, 제 1단계 문헌과 제 2단계 문헌이 자료의 형태, 주제, 언어, 발행국, 수명, 저자의 수로 나뉘어 SPSS/PC Studentware Plus⁹⁾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자료의 형태에서는 문헌이 도서, 잡지, 학위 논문, 회의록, 보고서 또는 다른 형태의 자료인지를 서지 정보로 구분하였다. 자료의 광범위한 주제 분석은 OCLC를 통한 표제명의 LC 분류번호로 하였고 각 문헌이 어떤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인가는 CL의 고유 분류번호에 의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언어는 제 1단계 문헌의 경우 CL의 서지정보에 나온 언어 코드에 의해 이루어졌고 제 2단계 문헌에서는 특별히 언급되어지지 않는 한 표제명에 쓰여진 언어를 그 자료의 언어로 간주하였다. 또한 제 1단계 문헌과 제 2단계 문헌의 언어를 비교하여 얼마나 다양한 언어가 연구에 인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료의 발행국은 자료의 국적을 알려주는 것으로, Herubel¹⁰⁾은 자료의 발행국과 저자의 소속 기관이 있는 장소가 간행물의 지리적 원천을 알려주는 좋은 도구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료의 첫번째 발행국과 첫번째 저자의 소속기관이 있는 국가가 자료의 국적을 알려주는 요소로 이용되었다. 제 2단계 문헌 저자들의 소속기관은 서지정보로는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분석은 제 1단계 문헌에 한하였다. 제 1단계 문헌과 제 2단계 문헌의 발행국에 관한 상관 연구로 얼마나 다양한 국가의 문헌이 인용되었는지를 알아 보았다. 자료의 수명은 문헌의 사용이 정적인지, 동적인지를 알려주는 요소로 제 1단계 문헌의 발행년도와 제 2단계 문헌의 발행년도 차이, 그리고 인용 문헌의 반을 차지하는 연령인 반감기(half-life)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잡지의 지난 호(back number) 구입에 있어서 얼마나 오래 전것까지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동시에 이러한 수명은 각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언제 폐기 혹은

9) Marija J. Norusis, *SPSS PC+ Studentware Plus (Computer File)*. (Chicago, IL: SPSS Inc, 1991).

10) Jean-Pierre V. M. Herubel, *Internationality in Journal as Demonstrated in the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and Libri. Collection Management*, 13(1990), p.4.

별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Price's Index¹¹⁾, 즉 연구 자료의 논문에서 그 논문보다 5년 전에 출판된 자료를 인용한 비율에 따라 그 분야를 최근 연구와 긴밀한 관계의 연구 전선을 일컫는 research front, 최근 연구와 오래된 연구가 평균적으로 연관된 normal, 그리고 고문서 발굴적인 archival 중의 한 분야로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다음으로는 제 1단계 문헌과 제 2단계 문헌의 저자의 수로 연구의 학술성과 과학성을 나타내는 공동 연구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 1단계 문헌이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참고문헌의 유무와 그 수에 의해 분석하였다. Price¹²⁾는 과학적 문헌의 평균 참고문헌의 수가 10-22개라고 하였고 Winsor & Winsor¹³⁾는 전체 문헌에서 참고문헌이 없는 문헌의 비율이 그 분야의 학술적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래서 Cline¹⁴⁾은 잡지의 학술성을 참고문헌이 없는 기사의 수와 하나의 문헌에 실린 참고문헌의 수로 그 기준을 삼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이 두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여 분류체계 문헌의 학술적 수준을 측정해 보았다.

2.4 연구의 가정과 제한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가정한다. 첫째, 한 분야에서 문헌의 공식적인 성격은 참고문헌을 통한 문헌의 구조로 증명될 수 있다. 둘째, 표본이 된 문헌은 분류체계 분야와 깊이 연관되어있다. 셋째, 참고문헌에 실린 문헌은 인용되지 않은 문헌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넷째, 잡지 기사의 주제는 그 잡지의 분류시 주제와 동일하다. 다섯째, OCLC의 LC 분류번호는 문헌의 주제 분류에 적합한 분류 체계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국제적으로 발행된 모든 분류체계 문헌의 수집과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1981년부터 1990년까지 IC의 CL에 실린 문헌과 수집된 그 문헌의 참고문헌으로 이 연구를 한정하였다. 둘째, 이 연구의 축

11) Derek J. de Solla Price, Citation Measures of Hard Science, Soft Science, Technology, and Nonscience, in Carnot E. Nelson and Donald K. Pollock, eds., *Communication Among Scientists and Engineers* (Lexington, MA: Heath, 1970), pp.3-12.

12) Ibid. p.7.

13) Donald A. Winsor & Diane W. Winsor, Citation of the Literature by Information Scientists in Their Own Publication,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4(1973), pp.377-381.

14) Gloria S. Clin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Its First Forty Year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3(1982), p.210.

점은 분류학 전반에 걸친 문헌이 아니라 자료를 찾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도서관의 서가분류와 도서 목록에 질서정연하게 모든 자료를 주제에 의해 배열하는데 쓰이는 서지분류, 이 두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자료분류체계이다. 셋째, 문헌의 주제 분야는 잡지 기사나 도서의 한 부분에 관한 주제라기보다는 잡지나 도서의 표제명에 의한 분류 번호에 의한다.

2.5 선행 연구

주제 분야의 성격을 다룬 참고문헌 연구에 관한 문헌은 매우 광범위하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많은 주제에 관해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대부분이 자료의 형태, 주제 분야, 언어, 발행국, 수명, 핵심 잡지, 핵심 저자 등에 따라 그 수나 비율을 통계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문헌정보학의 경우, 지난 15년 사이에 특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고 영어가 주된 언어였으며 잡지가 주된 자료의 형태로 미국에서 주로 문헌이 발행되었다. 그리고 학제간 (interdisciplinary) 연구의 특징을 의미하는 많은 다른 주제 분야와 상호 작용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참고문헌이 문헌정보학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아직도 문헌정보학의 많은 부속 분야에 관한 구조적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형태의 자료와 거기에 실린 참고문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과학의 참고문헌 연구에서는 정보 교환의 일차적 수단으로써 영어로 쓰여진 지난 5년 이내의 잡지 기사로의 의존이 컸고 문헌의 주제와 거의 비슷한 주제가 참고문헌에서 이용되었다.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헌의 주제와 동일한 주제에서 인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단행본이 가장 빈번히 인용된 자료의 형태였다.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인문과학 전체보다는 개개의 분야로 많이 연구가 되었고 결과가 다양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용시 5년 이상 오래된, 영어로 쓰여진 단행본이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빈번히 인용되었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에서는 외국어로 된 참고문헌이 사회과학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다른 언어로 된 문헌에 의존하지 않는 경향이 영어를 쓰는 연구자들에게 특히 심해 영어권 지역의 도서관 장서에서 외국어로 된 문헌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또한 미국과 영국이 가장 많은 인용을 받은 자료의 발행국이었는데 이것은 영어의 주된 사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연구 결과

3.1 형태별 분석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쓰이고 각각의 형태는 특수한 목적 또는 정보 요구를 봉사하는데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제 1단계 문헌(I)에서는 잡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반면 제 2 단계 문헌(II)에서는 도서가 단연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이 분야에서 중요한 정보원임을 증명해 주었다. 도서 형태의 자료가 많이 인용된 것은 대부분의 분류표, 분류체계 안내서와 편람류가 도서의 형태로 나오는데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잡지의 의존도가 높은 자연과학이라기보다는 도서의 인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인문과학적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표 2 〉 형태별 분포

문헌의 형태	수량(I)	%	수량(II)	%
도서	59	11.9	2,718	51.3
보고서	2	0.4	216	4.1
잡지	427	86.3	2,002	37.8
학위논문	1	0.2	43	0.8
회의록	6	1.2	252	4.8
기타	0	0.0	71	1.3
계	495	100.0	5,302	100.1

3.2 주제별 분석

주제 분석의 목적은 한 분야가 어느 정도 그 자체 분야 또는 타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 1단계 문헌(I)에서는 93% 정도의 정보원이 문헌정보학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과학과 기술분야로부터 4%가 좀 넘는 정보원이 나왔다. 제 2단계 문헌(II)에서도 제 1단계

문헌보다는 약간 낮은 89%의 참고문헌이 문헌정보학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분류체계 문헌이 문헌정보학이외의 분야로부터 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타학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으며 분류체계 문헌의 자체 개발이 잘 되어 있음을 알려 준다. 즉 학문의 높은 성숙도와 그 분야의 좀 더 발전된 특수 주제 문헌의 출현을 증거해 준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학제간 연구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다른 학문의 이론이나 방법론, 연구 도구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주제와의 많은 상호 작용이 개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분류체계 문헌이 주변 학문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다른 분야

〈 표 3 〉 주제별 분포

주 제	수량(Ⅰ)	%	수량(Ⅱ)	%
A: 총서	0	0.0	25	0.5
B: 철학, 종교	1	0.2	37	0.7
BF: 심리학	0	0.0	8	0.2
C: 역사학	1	0.2	56	0.9
D: 지리학	1	0.2	30	0.7
HM-HV: 사회학	0	0.0	91	1.8
HM-HJ: 경제학, 경영학	0	0.0	6	0.1
J: 정치학	3	0.6	36	0.7
K: 법학	3	0.6	17	0.3
L: 교육학	2	0.4	8	0.2
M: 음악	3	0.6	9	0.2
P: 어학, 문학	0	0.0	106	2.0
Q: 과학	8	1.7	82	1.6
T: 공학	12	2.6	52	1.0
Z: 문헌 정보학	432	92.7	4,615	89.1
확인불가능	29	*	124	*
계	495	99.8	5,302	100.0

〈 표 4 〉 분류체계별 분포

분류 체계	수 량	%
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BBC)	7	1.4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	72	14.5
Library Bibliographical Classification (LBC)	68	13.7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LCC)	84	17.0
Other Universal Classification	110	22.2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RCC)	27	5.5
Universal Classification in General	41	8.3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UDC)	86	17.4
계	495	100.0

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 학문마다 분류체계에 관한 관심이 적고 그래서 다른 주제 분야 문헌에서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관심 분야와 연구 문제를 위해서 문헌정보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분야로만 한정되는 것이다. 주제 분류에 있어서 각 주제의 전문가들이 분류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각 주제별 연구자들의 분류에 관한 많은 참여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에서와 같이 CL의 고유 분류체계 번호에 의해 제 1단계 문헌에서 각 분류체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특수분류체계, 즉 문서나 특수 도서관, 특히 분류체계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분류체계가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UDC),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LC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 Library Bibliographical Classification (LBC)이 차지하였다. 분류체계에 관한 일반적인 측면이나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RCC), 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BBC)이 연구 기간동안 다른 주요 분류체계보다 많이 연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3 언어별 분석

언어는 장서 개발 사서가 그 분야의 외국 간행물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분야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정보 유통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안내 도구이다. 문헌의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각 분류체계가 개발 및 사용 연구된 장소, 연구자의 모국어 등을 들 수가 있다. 표 5에서 제 1단계 문헌(I)의 언어 분포를 보면 영어가 주된 언어이다. 러시아어와 독일어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다양한 언어가 분류체계 문헌의 국제성을 보여준다. 제 2단계 문헌(II)에서도 영어로 된 문헌이 제일 많이 인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독일어와 러시아어의 순이었는데 제 1단계 문헌보다 더욱 다양한 언어로 된 문헌이 인용되었다. 영어가 아닌 자료가 제 2단계 문헌의 24%를 차지하여 외국어로 된 문헌의 무시할 수 없는 인용도를 나타내었고 분류체계 문헌으로의 보다 넓은 접근을 위해 외국어의 습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 표 5 〉 언어별 분포

언어	수량(I)	%	수량(II)	%
불가리아어	12	2.4	20	0.4
네덜란드어	5	1.0	54	1.0
영어	276	55.8	4,042	76.4
불어	11	2.2	92	1.7
독일어	48	9.7	376	7.1
헝가리어	9	1.8	22	0.4
이태리어	10	2.0	113	2.1
일본어	13	2.6	62	1.2
폴란드어	5	1.0	35	0.7
러시아어	93	18.8	325	6.1
세르보크로시아어	6	1.2	1	0.0
기타어	7	1.5	152	2.9
확인불가능	0	0.0	8	*
계	495	99.8	5,302	100.0

〈 표 6 〉 각 분류체계 문헌의 언어 분포

언어	분류	일반론	UDC	DDC	LCC	BBC	RCC	LBC	Others	계(%)
독 어		7.3	20.0	2.7				20.6	11.3	9.7
영 어		65.9	27.1	89.9	98.9	57.1	92.9	2.9	45.3	56.8
불 어		4.9	1.2	4.1					4.7	2.2
이태리어		4.9	2.4	2.7	1.1	14.3			1.9	2.0
일 본 어									7.5	1.6
폴란드어			2.4			14.3	7.1	60.3	1.9	1.0
루마니아어			2.4							0.4
러시아어		12.2	27.1						19.8	18.8
세르보 크로시아어			5.9						0.9	1.2
중국어		2.4								
불가리아어								14.7	1.9	2.4
네덜란드어		2.4	2.4						1.9	1.0
우크라이아어								1.5		0.2
스웨덴어			1.2							0.2
포르투갈어			1.2	1.4						0.4
헝가리어			7.1						2.8	1.8
계(%)		8.3	17.2	14.7	17.6	1.4	5.7	13.7	21.4	100.0

표 6에 의하면, 각 분류체계에 관한 문헌과 거기에 쓰여진 언어를 보면 유럽에서 주로 사용된 UDC와 러시아에서 개발된 LBC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류체계 문헌이 영어로 쓰여졌다. 이는 LBC와 UDC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머지 주요 분류체계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LBC는 러시아의 일반 및 대학 도서관에서 쓰여지고 동독, 불가리아, 체코에 소개되어 문헌의 많은 부분이 러시아어, 독일어, 불가리아어로 이루어졌다. UDC에 관한 문헌은 영어와 러

시아어로 쓰여졌는데 LBC가 UDC에 기초하여 분류표를 만들었고 UDC가 러시아의 색인, 초록 봉사와 모든 과학 기술 도서관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제 1단계 문헌의 언어와 제 2단계 문헌의 언어를 비교해 보면 제 1단계 문헌이 영어인 경우 그 안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90%가 영어로 된 문헌이었다. 이것은 Broadus¹⁵⁾가 영어로 발행한 연구자들이 거의 영어로만 이루어진 자료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던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참고문헌에서 쓰여진 언어가 그것을 인용한 문헌의 언어와 일치하였다.

3.4 발행국별 분석

제 1단계 문헌(I)에서 미국, 러시아, 독일이 전체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미국이 최고 발행국이었다. 표 7에서와 같이, 영어를 쓰는 나라 특히 미국, 영국, 인도가 분류체계 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LBC가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러시아와 동독에서 쓰이고 UDC가 서독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그 국가들로부터 발행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상당수의 자료가 발행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 국가에서 이 분야의 국제적인 영어 간행물이 많이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발행국의 분포는 일반적으로 언어의 분포와 비슷한 형태를 나타냈고 이것 역시 국제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제 2단계 문헌(II)에서도 미국에서 발행된 문헌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영국, 독일, 인도, 러시아의 문헌들이었다. 즉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인 미국, 영국, 인도가 분류체계의 발달에 많이 인용된 셈이다. 그리고 미국은 많은 문헌이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많이 인용되었다.

제 1단계 문헌의 첫번째 저자의 소속 기관에 따른 지역 분포는 미확인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미국(34.3%)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독일(10.8%), 인도(10.3%), 러시아(8.8%), 영국(7.1%)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인도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Ranganathan이 Colon 분류법을 인도에서 만들었고 그 후 많은 분류체계 연구가 인도의 Documentation Research Training Center (DRTC)를 중심으로

15) Robert N. Broadus, The Application of Citation Analysis and Library Collection Building. *Advances in Librarianship*, 7(1977), p.326.

〈 표 7 〉 발행국별 분포

발행국	수량(Ⅰ)	%	수량(Ⅱ)	%
불가리아	12	2.4	21	0.4
캐나다	5	1.0	47	0.9
프랑스	8	1.6	93	1.8
독일	69	13.9	452	8.5
헝가리	9	1.8	20	0.4
인도	30	6.1	373	7.0
이태리	10	2.0	112	2.1
일본	13	2.6	65	1.2
네덜란드	19	3.8	202	3.8
폴란드	6	1.2	36	0.7
러시아	90	18.2	337	6.4
영국	33	6.7	611	11.6
미국	164	33.1	2439	46.0
유고	6	1.2	15	0.3
오스트랄리아	4	0.8	59	1.1
덴마크	3	0.6	94	1.8
기타국가	14	2.8	326	4.2
계	495	99.8	5302	98.2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각 분류체계에 관한 문헌의 지역적 분포는 LBC, RCC, UDC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류체계 연구에 있어서 미국이 주된 발행국이였다. UDC의 첫번째 판의 발행이 Brussels의 Institut Internationale de Bibliographie (IIB)로부터 나왔고 그 후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Documentation (FID)에 의해 증보되고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어 UDC에 관한 문헌이 유럽의 많은 국가로부터 발행되었다. 동구권 국가로는 러시아, 불가리아, 헝

가리, 유고슬라비아,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등이 UDC, RCC, LBC, 특수 분류 체계에 관해 상당수의 문헌을 발행하였다. 인도가 RCC의 많은 문헌을 발행하였고 러시아가 LBC 관련 문헌의 주된 발행국이었다.

제 1단계 문헌의 언어와 발행국과의 관계를 보면 각 국가마다 거의 그 특정 국가에서 쓰고 있는 공용어로 가장 많이 발행되었다. 제 2단계 문헌에서도 언어와 발행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문헌을 발행한 국가와 그 국가의 공용어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어 문헌 대부분의 인용은 러시아에서 발행된 문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Narin, Frame & Carpenter¹⁶⁾ 그리고 Arunachalam & Singh¹⁷⁾가 러시아어로 된 문헌을 인용한 연구자들은 러시아에서 발행된 문헌에 주로 의존한다고 했던 것과 일치한다. 중국은 모든 인용 문헌이 자국으로부터의 문헌에서 이루어졌고 브라질, 러시아, 미국, 루마니아, 일본, 프랑스, 폴란드의 문헌에서는 반 이상의 인용 문헌이 자국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국 문헌의 높은 의존도는 몇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다. 첫째, 각 국가는 국제 언어보다는 쉽게 쓰고 그 국가에서 많이 읽힐 수 있는 자국어로 대부분의 문헌을 발행한다. 둘째, 외국 자료와 번역판이 많은 국가에서 구하기 어렵다. 이것은 또한 이 분야 연구자들이 외국 문헌을 자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많은 분류체계 연구자들이 국제 잡지나 국제 학술 회의에 그들의 연구를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국가도 있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국가의 언어보다는 영어로 쓰여진 문헌이 훨씬 더 많이 인용되었다.

인용한 문헌의 발행국과 인용된 문헌의 발행국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오스트랄리아, 대만,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스위스에서는 미국의 문헌을 자국 문헌보다 훨씬 더 많이 인용하였다. 이것은 미국 문헌이 자국의 문헌보다 훨씬 나은 수준을 갖고 많이 읽혀진다는 일반적인 편견으로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헌의 세계적인 보급율, 문헌에 사용된 언어, 질적 수준과 유명도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요소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네덜란드의 문헌은 14개국의 문헌에서 인용되었는데 이것은 네덜란드가 영

16) Francis Narin, J. Davidson Frame & Mark P. Carpenter. Highly Cited Soviet Paper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Social Studies of Science* 13(1983). pp.307-319.

17) Subbiah Arunachalam & Udai N. Singh. Publication & Citation Patterns in the Literature of a High Metabolism Area: The Case of Superconductivity in 1970.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8(1984). p.101.

어로 된 국제 잡지를 간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참고문헌의 발행국은 대부분 그 문헌을 인용한 문헌의 발행국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문헌은 미국 문헌을 많이 인용한 반면 미국의 문헌은 좁혀림 다른 국가의 문헌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DISISS¹⁸⁾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3.5 수명

제 1단계 문헌에서 발행년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1988년(7.7%)이 가장 적고 1982년(12.9%)이 가장 많았다. 표 8에서와 같이 제 2 단계 문헌에서는 가장 많은 참고문헌의 발행년도가 1976년부터 1980년까지였고 그 다음이 1981년부터 1985년까지였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발행된 문헌의 인용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한 문헌이 이용될 때까지의 시간적 지체(time-lag) 때문이다. 전체 참고문헌의 30%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발행된 것이었고 전체의 약 41%가 그 보다 앞선 10년간인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발행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참고문헌의 71% 이상이 지난 20년(1971년-1990년) 사이에 발행된 것이었다. 거의 90% 가량의 참고문헌이 1961년 이후에 발행되었고 1900년 이전의 문헌은 겨우 1%를 넘었다. 그러나 오래된 문헌으로의 인용이 적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으며 이들 문헌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 1단계 문헌의 발행년도에서 제 2단계 문헌의 발행년도를 빼면 얼마나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자료에 대한 인용이 이루어졌는지 보여준다. 표 9에 의하면 참고문헌의 약 40% 가량이 인용한 문헌의 발행년도로부터 5년 이내에 발행된 자료이었다. 그러므로 Price에 의하면 21%-42%에 해당하는 최근의 자료와 오래된 자료를 평균 정도로 사용하는 normal에 해당하였다. 참고문헌의 83.2%가 인용될 당시 20년 이하의 자료였으나 나머지 16.8%가 20년 이상이 되는 문헌이었다. 이것은 분류체계 분야가 이전의 분류표들, 그리고 오래되었지만 유명한 분류학 개론서와 함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분야의 장서를 여전히 필요

18) Dabid Nicholas & Maureen Ritchie, *Literature and Bibliometrics*. (London: Clive Bingley, 1978). p.116.

로 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즉 문헌정보학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분류체계 분야는 오랫동안 다루어 지고 있는 문제를 자주 들춰 보게 되며 이전의 분류체계, 규칙, 안내서, 편람, 규정 등을 관심있게 참고함을 내포하는 것이다. 또한 인용 문헌의 최신성은 분류체계가 새롭고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개발이 계속되는 분야로써 변화에 부응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표 8 > 인용된 문헌의 발행년도 분포

연 어	수 량 (I)	%
1835 - 1900	63	1.3
1901 - 1905	32	0.6
1906 - 1910	16	0.3
1911 - 1915	11	0.2
1916 - 1920	11	0.2
1921 - 1925	5	0.1
1926 - 1930	27	0.5
1931 - 1935	32	0.6
1936 - 1940	37	0.7
1941 - 1945	37	0.7
1946 - 1950	63	1.2
1951 - 1955	116	2.2
1956 - 1960	180	3.4
1961 - 1965	313	6.1
1966 - 1970	533	10.5
1971 - 1975	784	14.8
1976 - 1980	1,379	26.1
1981 - 1985	1,164	21.7
1986 - 1990	499	8.8
계	5,302	100.0

〈 표 9 〉 인용된 문헌의 수명

수 명(년)	수 량	%
0 - 5	1961	38.6
6 - 10	1164	21.5
11 - 15	742	14.3
16 - 20	477	8.8
21 - 25	317	5.7
26 - 30	159	2.8
31 - 35	111	2.2
36 - 40	58	1.1
41 - 45	42	0.8
46 - 50	27	0.5
51 - 100	209	3.1
101 - 134	35	0.6
계	5302	100.0

반감기(half-life)는 인용 문헌의 50%를 차지하는 연령으로 분류체계 문헌의 반감기는 약 7.5년이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분류체계학자들이 그들의 연구에 인용한 자료의 반은 7.5년 이전까지의 문헌에 의존했음을 뜻한다. 타분야와 비교해보면 전자계산학 분야가 3.32년¹⁹⁾, 사회학이 9년²⁰⁾, 경제학 분야는 6-7년²¹⁾, 정보학 분야가 5-7년²²⁾, 도서관학이 6년²³⁾ 이어서 거의 사회과학 분야 문헌의 반감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9) 최승주. 전자계산학 문헌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4). pp.40-42.

20) P. Earle & Brian Vickery. Social Science Literature Use in the U.K. as Indicated by Citations. *Journal of Documentation*. 25(1969). pp.123-141.

21) Ibid.

22) 최정혜. 도서관학 분야 문헌의 계량서지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pp.36-37.

23) Ibid.

〈 표 10 〉 공동 연구 정도

저자의 수	수량(Ⅰ)	%	수량(Ⅱ)	%
1	391	79.8	3,845	80.2
2	78	15.9	466	9.7
3	12	2.4	96	2.0
4 이상	9	1.8	67	1.4
단체나 기관	0	0.0	323	6.7
불확실	5	*	505	*
계	495	100.0	5,302	100.1

3.6 공동연구 정도

저자의 공동 연구 행태를 제 1단계 문헌(I)에서 살펴보면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의 20% 정도가 둘 이상의 공동 저자와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 분야의 낮은 연구의 공동 연구 체재를 반영한다. 제 2단계 문헌(II)에서는 20%에도 못 미치는 공동 연구 문헌의 인용이 이루어졌다. 공동 연구를 유도하는 요소가 연구 문제, 연구 과정, 연구에 사용되는 기술, 연구 주변 환경, 정부 및 재단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 등으로 볼 때 재정적인 지원의 부족과 개인으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성격 등이 분류체계의 공동 연구 부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류표가 많은 주제분야를 종 개념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므로 각 주제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류위원회와 같은 조직체를 만들어 이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3.7 참고문헌의 유무와 그 수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134개의 전체 문헌에서 495개 문헌만이 참고문헌을 갖고 있어서 전체의 44% 정도만이 참고 문헌을 갖고 있었다. 참고문헌이 없는 문헌이 반 이상을 차지함은 매우 놀랍지만 대부분이 분류체계에 관한 모임

또는 회의에 관한 보고나 공고, 협회의 뉴스, 서평 등의 간단한 기사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많은 문헌이 발행되었다하더라도 참고문헌을 실은 학술적 연구 문헌은 적은 수였다. 그러므로 분류체계 문헌의 학술적 수준을 참고 문헌의 유무 비율로 측정한다면 꽤 낮은 편이고 제 1단계 문헌에 실린 각 문헌의 참고문헌의 수를 측정해 보면 10개 이하의 참고문헌이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 역시 이 분야의 낮은 학술 수준을 보여준다. 각 문헌의 평균 참고 문헌의 수는 12.6개가 되는데 39개의 단행본 자료와 해당 참고 문헌을 제외하면 평균 9.7개의 참고 문헌이 나머지 381개 문헌에 인용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과학적 문헌은 잡지 기사 하나에 평균 10-22개의 참고문헌이 있는 것이라는 Price의 과학적 문헌의 기준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이다.

4. 결 론

이 연구는 분류체계에 관한 국제 문헌의 본성과 성격을 알려주는 양적인 측정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문헌의 국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참고문헌 연구의 잠재적 가치를 연구하였다. 문헌의 형태, 주제, 언어, 발행국, 수명, 저작형태, 참고문헌의 유무 그리고 그 수에 관한 분류체계 문헌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발행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lassification Literature* 라는 분류학 관련 국제 현행 주해 서지에 실린 문헌을 선정하고 그 문헌과 그 안에 실린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서 얻은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분류체계 분야의 연구자들은 많은 연구가 잡지 기사 형태로 발행됨에도 불구하고 도서 형태의 문헌을 가장 빈번히 인용하였다.
- (2) 분류체계 연구자들은 타학문의 의존도가 매우 낮다.
- (3) 각 분류체계 중에서 특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 (4) 영어로 된 분류체계에 관한 문헌이 가장 많이 발행되었으나 러시아어와 독일어로 이루어진 문헌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인용된 참고 문헌에서도 영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인용된 문헌의 언어가 대부분 인용한

문헌의 언어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 분류체계에 관한 문헌도 그 분류체계가 만들어지거나 이용 개발된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이루어졌다.

- (5) 미국, 러시아, 독일에서 발행된 자료가 분류체계 문헌의 반을 훨씬 넘게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강세를 보였으며 영어권 국가가 분류체계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저자의 소속기관에서도 미국이 제일 많았고 독일, 인도, 러시아, 영국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분류체계 문헌의 언어와 발행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참고문헌에서도 미국이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의 발행국이었고 그 다음이 영국, 독일, 러시아, 인도 순이었다. 그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발행된 문헌이 상당수 인용되어 분류체계 문헌의 국제적 정보 유통을 보여 주었다.
- (6) 분류체계 분야에서는 발행한 지 5년이 안되고 인용된 문헌이 38.6%를 차지하여 Price's Index에서 말한 최신 자료와 오래된 자료를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주제 분야임을 나타내 주었다. 그리고 분류체계 문헌의 반감기도 약 7.5년으로 사회과학 문헌의 반감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7) 분류체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는 적었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연구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 (8) 전체 분류체계 문헌 중 참고문헌을 갖고 있지 않은 문헌의 비율이 높고 하나의 문헌 당 참고문헌 수가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참고문헌의 유무와 평균 참고문헌의 수에 의하면 분류체계 분야는 학술적 또는 과학적 분야에 좀 미치지 못했다.

장서 개발에 있어서 주제 문헌의 구조에 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나은 장서 운영에 유익한 도구로서 분류체계의 참고문헌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반드시 분류 담당 사서나 그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과 설문지 조사, 도서관 자료의 대출 및 상호대차 이용 등의 분석을 병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량적인 면이 정확하고 객관적이거나 반드시 질적인 면을 나타내주는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참고문헌을 갖고 있었으나 수집하지 못해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문헌이 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것이므로 문헌과 그 문헌 안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언어나 발행국의 관계는 더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는 일

정기간마다 계속 연구되어 새로운 추세를 보완시켜 나가야 하며 관련 분야와의 비교 분석 또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와 관련해서 목록분야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여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앞으로 주제 문헌에 관한 구조적 특성은 모든 분야 또는 모든 시기에 있어서 보다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A Reference Study on International Literature of Classification Systems During the Period 1981-1990

Yeon-Kyoung Chung*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of classification systems published in the period 1981-1990. The references in the "Classification Literature" sections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and the references in these source items were examined.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analyzing each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ormat, subject, language, geographical origin, age, authorship and number of references.

The findings from the data analyses show clearly that in the literature of classification systems, 1) books were the most frequently cited format; 2)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as the most frequently cited subject; 3) English was the major language; 4) the literature of each classification system was written predominantly in English except for Library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5) the language of each source item was the same as that of the greatest number of references of that source item; 6) the U.S., Germany, India, Russia, and the U.K. were the major geographic origin of publication; 7) there was a very close relationship between country of publication and language; 8)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documents was cited more than any other country except for the U.S.; 9) Price's Index of the literature revealed that the literature was a soft science and the half-life of the literature was about 7.5 years; 10) there was a preponderance of single authorships; 11) the

* Instructor,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Ewha Women's University

literature was not a scholarly or scientific literature, according to the average number of references in source items and the percentage of unreferenced items.

The findings of this reference study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ification systems literature. They prove useful for the collection development and assist classification systems researchers to prepare linguistically for their careers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efforts.